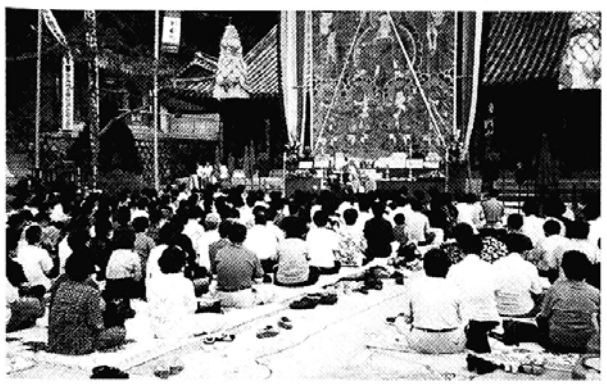
▨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현대불교 · 생명나눔회 공동캠페인

생명나눔도 孝실천…백중 뜻 되새겨



◇봉원사 캠페인은 영산재가 펼쳐지고 하안거 해제의 의미도 담은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수안사 캠페인은 백중의 의미와 함께 생명나눔의 참뜻을 되새기게 했다. 주지 세민스님이 서명하고 있다.

8월25일 서울 봉원사 · 수안사 법회

장기기증 192 · 화장서약 359명

봉원사 영산재 시연 성황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본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결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 대법회가 지난달 25일 서울 봉원사와 수안사에서 각각 거행됐다.

특히 이날 열린 두 법회는 백중을 맞아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장기기증과 화장문화 정착'을 통해 새롭게 조명합으로써 불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백중맞이 대법회 및 하안거 해제와 함께 열린 봉원사 캠페인은 백중을 맞아 펼쳐진 영산재와 함께 이뤄져 성황을 이뤘다. 영산재는 시련 대련 괘불이운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법회에 참석한 5백여 불자는 백중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주지 인공스님 등 112명이 장기기증을, 217명이 화장유언을 서약하는 등 모두 329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봉원사 주지 인공스님은 "백중과 하안거 해제라는 뜻깊은 날에 생명나눔캠페인까지 벌이게 돼 기쁘다"며 "모든 불자들이 삶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꾸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백중맞이 법회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한 수안사(주지 세민) 법회도 백중과 생명나눔의 참의미를 일깨워주었다.

주지 세민스님은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진정한 효"라고 강조하고 "법회에 참여한 사부대중은 물론 모든 불자들에게도 그 뜻을 알려 널리 캠페인이 전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안사 캠페인에서는 80명이 장기기증을, 세민스님을 비롯한 142명이 화장유언에 서약하는 등 모두 222명이 참여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주제 법문

육신공양은 숭고한 보시

봉원사 주지 인공스님

불교에서는 보시의 공덕을 으뜸 공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조건없이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비심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시에는 재시 법시 무외시가 있습니다. 재시는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요, 법시는 좋은 법문을 듣게 해주는 것이요, 무외시는 자신의 육신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보시는 모두가 숭고하지만 그중에서도 무외시는 가장 힘들고도 그 뜻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특히 생명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입니다. 불자들은 전통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성향을 띠어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무슨 캠페인이 벌어지면 타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비해 불자들은 뒤에서 은근하게 참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자들도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캠페인이 열리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웃에게도 권해야 합니다. 더구나 딱한 처지의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자는데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한가지 있습니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화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불교의 전통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여의도 면적의 3배나 되는 땅이 묘지로 잠식된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젠 불자들이 생명을 나누고 화장문화를 선도하는데 적극 나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고통 나누는 것 '동체대비'

수안사 주지 세민스님

백중은 불교의 고유명절로 목련존자의 효행을 기리는 날입니다. 목련존자의 효행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어머니를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보살행 그 자체였습니다. 효의 의미가 이렇듯이 생명을 나누는 것도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통을 나누는 것은 보살의 근본사상으로, 나를 버림으로써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한 것일 뿐 그 밖에 아무 것도 바라는 것이 없으니 동체대비원이라 했습니다. 즉 이를 일러 사신공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명나눔이란 바로 이와 같아서 향이 향체를 불태워 모든 이에게 향기로움을 주는 것처럼 보살행은 동체대비의 마음가짐일 때만 그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하며 정진하더라도 과연 우리는 보살행을 하고 있으며,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같이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나를 버려 고통받는 중생을 구해야겠다는 원행은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부모 아닌 이가 없고 내 형제 아닌 이가 없으니 생명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요, 형제를 살리는 숭고한 보시행인 것입니다.

또 화장에 대해서도 불자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죽으면 썩을 육신에 왜 집착을 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이 아무 부질없는 집착임을 알게 된다면 화장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눔과 화장은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실천에 옮기는 불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모저모

기독교 신자도 동참

O…교회에 다닌다는 한 개신교 신도가 봉원사 백중법회에 참석했다가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약해 눈길. 전재현씨(68, 서울 성북구 정릉동)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봉원사에 모셔놓고 20년째 매년 백중 때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다고. 서약을 마친 전씨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내종교 네종교를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말과 함께 즉석에서 후원금을 내기도.

순찰 경관이 장기기증

O…서대문 경찰서에 근무한다는 황세영 순경(22)은 봉은사 순찰을 나왔다가 생명나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단숨에 장기기증에 서약. 황순경은 서약을 마치고는 곧바로 돌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시느라 애쓰신다"며 인사말을 건네기도.

가족동반 많아 눈길

O…봉원사 캠페인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로 사찰을 찾은 불자들이 많아 가족축제같은 분위기를 연출. 이중 5살짜리 조카를 데리고 인천에서 왔다는 강병수씨(20)는 서약을 마치고 난 후 조카에게 장기기증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후원회 부회장 동참독려

O…수안사 캠페인에서는 이사찰 신도이자 생명나눔실천회 후원회 부회장인 이원기 보살이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독려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신도들은 바쁜 걸음을 재촉하다가도 이거사의 얼굴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지 서명대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법회 막바지 세보살 신청

O…수안사 캠페인이 끝날무렵 가쁜 숨을 몰아쉬며 50대 보살이 뛰어와서는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약. 이어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의 보살이 뒤따라 서약했는데…. 서약을 마친 50대 보살은 "딸들과 함께 서약하려다 못할뻔 했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동참자 명단

봉원사

▲장기기증(112명)=인공스님 일운스님 강희남 고희경 곽경희 김경수 김경화 김길숙 김득선 김명옥 김명환 김병찬 김상일 김선희 김영숙 김영숙 김영자 김옥자 김옥주 김재웅 김종남 김준기 김희경 남정희 목정순 박건실 박근성 박서형 박선영 박익훈 박정은 박종근 박종명 박한본 박향란 박현일 배미옥 배현주 변혜숙 서선덕 서승정 서형란 성숙제 손홍인 송기창 송시원 송준업 송혜선 신영채 안순녀 안웅렬 양재혁 여순자 오현숙 윤명선 윤상언 윤선영 윤태일 윤희재 이경화 이금숙 이길자 이난규 이남수 이대영 이동관 이말선 이명숙 이명주 이사식 이수영 이영숙 이우대 이원희 이임선 이재근 이재웅 이정화 이준화 이춘희 이칠복 이한우 이희천 임미화 임병희 임수진 장 혁 장만수 장용환 장재옥 장정동 장지원 정경애 정옥분 정은정 정진성 정차남 조경훈 조순희 조일금 조정옥 조진분 조희옥 최승권 최윤정 최헌수 태선주 현재옥 홍성식 황성철 황숙자 황용근

▲화장서약(217명)=선암스님 진현스님 일운스님 강병수 강현심 강희남 고진규 고현숙 고희경 곽경희 권오선 김경란 김경수 김경화 김기순 김길숙 김동수 김동순 김득선 김명옥 김명환 김문수 김병찬 김상일 김선곤 김선순 김선희 김성화 김소영 김소혜 김순희 김양선 김영숙 김영자 김옥자 김옥주 김은실 김은자 김인자 김인호 김재웅 김정규 김정자 김종남 김종훈 김준기 김춘재 김혜련 김화자 김희경 김희순 나성근 나인숙 남무애 남옥현 남정희 노맹대 목정순 박건실 박근성 박미순 박미원 박서형 박선부 박선영 박소연 박수자 박영래 박익훈 박일동 박정숙 박정은 박종근 박종명 박종업 박지서 박진호 박한본 박향란 박향순 박희동 배금옥 배기옥 배미옥 배현주 변혜숙 서명옥 서선덕 서승정 서형란 석순회 성선제 성숙제 성영순 손건영 손순임 손흥인 송경순 송기창 송나영 송분헌 송시원 송영인 송준업 송혜선 신순자 신영채 신지현 신현두 심순택 안소민 안순녀 안웅렬 양재혁 엄대석 여민숙 여순자 오미자 오정자 오현숙 위명순 윤명선 윤명희 윤무순 윤상언 윤선영 윤여운 윤임구 윤태일 윤희재 이경화 이구품행 이금숙 이금희 이길자 이난규 이남수 이다길 이대영 이동관 이말선 이명숙 이명주 이명철 이미숙 이사식 이선민 이성애 이수영 이영숙 이영숙 이옥기 이우대 이원희 이임선 이재근 이재웅 이정자 이정화 이종열 이준화 이춘희 이칠복 이한우 이호형 이희창 이희천 임미화 임병희 임선형 임수진 임옥희 장 혁 장만수 장영자 장용환 장재옥 장정동 장지원 전재현 정경애 정계운 정명자 정옥분 정은정 정진성 정차남 조경훈 조상호 조성원 조순희 조일금 조정옥 조진분 조혜숙 조희옥 지소순 지이쁜 최명식 최선옥 최승권 최윤선 최윤정 최지윤 최헌수 태선주 한종애 허성자 현경민 현재옥 홍성식 황성철 황세영 황숙자 황순금 황용근 황유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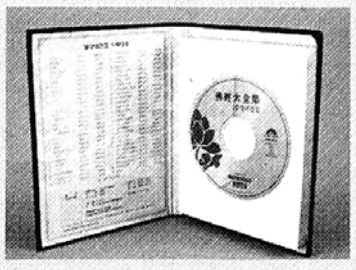
수안사

▲장기기증(80명)=강금례 고광진 고영삼 곽보선 곽정표 곽주연 권인숙 김금순 김도연 김명숙 김명실 김명자 김선기 김옥란 김외자 김정미 김택곤 김한일 김현숙 김형민 남배현 민현주 박기자 박순점 박종구 박지연 박효정 배정화 상순님 서만숙 성광모 송필영 신경숙 신미희 신창범 신태순 신태한 안명숙 양성석 양수옥 양현모 오옥순 오정옥 유병길 유옥희 유재설 윤계순 윤명수 윤상철 이가연 이경자 이영란 이영애 이예순 이용택 이원기 이월순 이윤우 이재숙 이종귀 이주영 이진호 이태순 이효근 임영식 전계운 전금자 전영자 정만순 정우근 정옥자 정유진 정정순 정정현 정한용 조경자 조금학 조문자 조수호 조숙자 조양옥 조측연 채민석 채희순 최광연 최선자 최수자 최윤정 최은선 최정희 하연희 한경림 한경화 한국정 한근자 한승혜 한종순 현인숙 홍남현 홍순자 홍천표 황동철 황연희 황정옥

(사)생명나눔실천회는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서약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02)734-8050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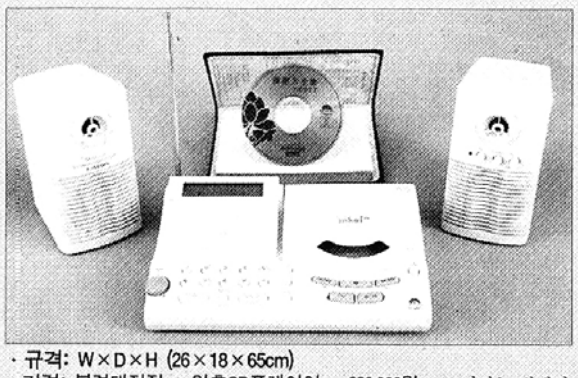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한장에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24초) 3. 아미타경(13분38초)
4. 화엄경 약찬게(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성게(2분 49초) 9. 무상게(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02초) 11. 금강경(33분15초) 12. 반회심곡(13분07초)
13. 천수경(18분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00초) … 55. 회심곡(9분05초)
56. 탑돌이(8분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산업부선정



· 규격: W×D×H (26×18×65cm)
·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인켈에서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듣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

CD 한장을 비워 두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스님들의 포교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높은 법력이 담긴 좋은 법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CD에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님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간: 1999. 8. 16 ~ 8. 21
(기간만에 주문한 분에 한함)

구입 문의 080-900-0101 032-343-22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입금계좌번호 : 서울은행 51304-6100001 (예금주 이희숙)

■보급처 : 법운 홍법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32번지